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미네소타를 먹이고 세상을 먹이는 교회 (2020 표어)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Minnesota 뉴스레터 겨울호

kpcm NEWSletter



2020 신년사 >>> 담임목사 정영환

미네소타를 먹이고 세상을 먹이는 교회

우리 교회는 작년에 <세상을 먹이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한 해를 보냈습니다. 2020년에는 그 표어를 더 발전시켜서 <미네소타를 먹이고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애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먹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먹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아무 준비도 없이 하늘로 올라가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 1 장 8 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그들이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는데,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순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되는데, 먼저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부터 먹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2020년에 우리 교회는 미네소타를 먹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미네소타를 먹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1. 우리는 먼저 찾아오는 사람들을 먹일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배고프지 않도록 먹이는 일입니다. 새로운 교회에서 정착하고 뿌리를 내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분들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먹여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새로운 친구, 새로운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는 새 가족을 맞이할 때, 마치 예수님을 영접하듯이 환영하고 영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장에 계속)

위원장 (장로)

당회서기	관리위	교육위	봉사위	목양위	선교위	예배위	영접위	행정위	EM
황상섭	구승모	오성욱	김옥희	손창수	마영찬	김식철	손창수	황상섭	오성욱
									

각 기관 고문장로 및 회장/대표 (존칭생략)

각 기관	제 1 남	제 2 남	제 1 여	제 2 여	디모데	EM	집사회	찬양대
고문 장로	변영희	구승모	김옥희	김옥희	마영찬	오성욱	담임목사	
회장/대표	장경관	오성욱	황지애	이혜인	김은기		장헬렌	조용원

10/26/2019 - 새 가족 환영회



11/8-11/10/2019 - 두란노 부부학교

미네소타 1기 부부학교가 본 교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바로 서는 부부의 역할을 새롭게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11/16/2019 - 제 1 여선교회 수양회

LA 새언약 장로교회의 박윤영 전도사님을 모시고 “오늘 우리에게 십계명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주제로 11/16(토)에 여선교회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주어진 십계명의 의미를 되새기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11/26/2019- 집사회 BCCS 방문 및 물품 전달

이웃 돕기 행사로 수년째 진행하고 있는 BCCS(Brooklyn Center Community School) 지역 저소득 가정의 자녀들을 위하여 장갑, 모자, 방한 의류, 속옷, 양말 등의 방한 용품을 전달하였습니다.



12/20/2019- Youth 크리스마스 파티 & Teacher Appre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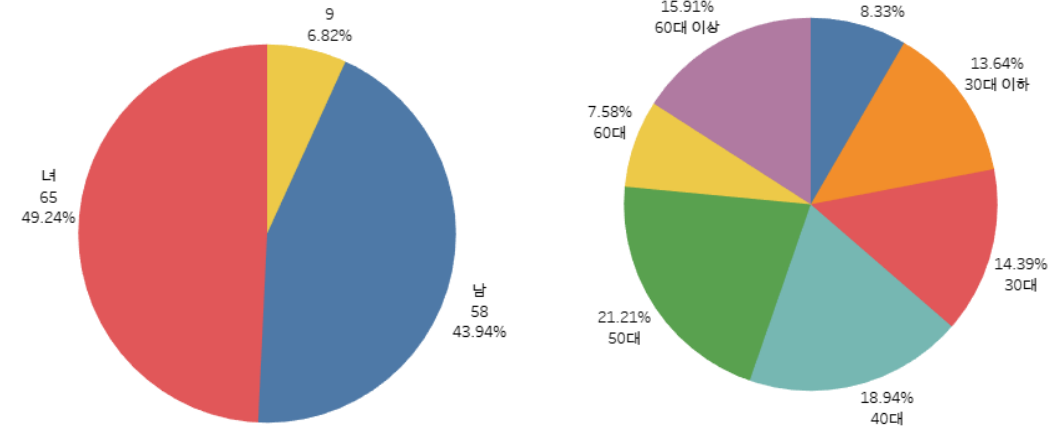
12/24/2019-성탄 전야 예배



1. 설문 조사 방법 및 결과 요약

- 설문조사 기간: 2 주간, 11/10/2019 (주일) - 11/24/2019 (주일)
- 목적: 교회 사역 전반에 관한 교인들의 의견 및 평가를 듣고 사역에 반영하기 위해
- 응답자 (기한 내): 총 132 명 (KM: 129 명, EM: 3 명)
- 응답 방법: 온라인 설문 응답 93 명 (70%), 종이 설문 응답 39 명 (30%)

2. 설문 응답자 비율



- 최근 5년 내에 실시한 전교인 설문 조사 중 가장 많은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 설문응답이 성별과 연령대로 잘 분산되어 전체 교인의 교회 사역에 대한 관심과 교회에 대한 요청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3. 직분 및 성별에 따른 응답 결과

- 남성의 경우 20~30대 평신도 및 40대 집사님들이 가장 적극적인 참여를 해주셨고 여성의 경우 30~50대 평신도 및 40~50대 집사님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4. 조사 대상의 위원회 및 선교회 소속 동향

- 조사 대상 중 1/3 가량은 위원회와 선교회에 모두 소속이 되어 있었고 1/3 가량이 위원회 및 선교회에 모두 소속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상위 10 개 질문 항목입니다.

- 1) 한글학교 나랏말씀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역이다.
- 2) 주일아침 성경공부는 필요한 사역이다.
- 3) 디모데 청년 사역이 잘되고 있다.
- 4) 일대일 제자양육은 필요한 사역이다.
- 5) 주일학교 사역이 잘되고 있다.
- 6) 하나님 나라 사역훈련은 필요하다.
- 7) 교회 건물 관리가 잘되고 있다.
- 8) 예배당 음향시설이 좋다.
- 9) 주일 점심 친교가 잘되고 있다.
- 10) 교회 행정이 잘되고 있다.

6. 부정적인 평가를 받은 하위 10 개 질문 항목입니다.

- 1) 최근 주일 예배 참석이 늘었다.
- 2) 최근 교회 재정이 좋아지고 있다.
- 3) KM 예배가 현재 이대로 좋다.
- 4) 최근 교회 방문자 및 등록자가 늘었다.
- 5) 최근 교인들의 신앙/영성이 좋아지고 있다.
- 6) 최근 교회 분위기가 좋아졌다.
- 7) 교인들의 사역 참여가 좋아졌다.
- 8) KM의 미래가 밝다.
- 9) 우리교회 EM의 미래가 밝다.
- 10) 최근 EM 방문자/등록자가 늘었다.
- 11)

2020년 KPCM 당회와 모든 사역자들은 교인들이 지적해 주신 본 교회의 장점과 고쳐야 할 점, 우려와 조언 등 교인들의 솔직한 바람을 겸손한 마음으로 귀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덕이 되도록, 쉬지 않고 기도와 열심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점은 더욱 더 귀하게 성장시키고 부족한 점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변화를 가져오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참여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더 나은 교회, 하나 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모든 교인들이 사랑으로 서로 질책하며 열려 있는 사역에 열심으로 참여해, 한 분 한 분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새 가족 중에서 저에게는 특별히 30 대의 젊은 가정을 향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서 또는 직장을 다니면서, 어린아이를 낳아 기르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곳에 오는 젊은 가정들은 부모님들의 도움이 없이 부부의 힘으로 아이들을 돌보아야 합니다. 어린 아기를 데리고, 유모차를 끌고 교회에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간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도 아이들 때문에 제대로 앉아서 예배드릴 수도 없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면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아파서 한 주 교회를 빠져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연락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2020 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가 30 대의 젊은 가정들을 섬기고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가정들을 위한 모임을 준비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잠시라도 아이들을 맡겨놓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젊은 가정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십시오. 그들을 위하여 잠시라도 아이들을 봐주시고, 밥이라도 한 그릇 대접해 주십시오.

2. 우리는 미네소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먹일 것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를 느껴서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찾아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사람들을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2020 년에는 우리 교회가 미네소타에 사는 한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래서 미네소타를 먹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2020 년 추수 감사 주일로 D-day 를 정했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위에 있는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두 교회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일 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추수 감사 주일에 우리들끼리만 모여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이 아니라, 미네소타에 사는 모든 한인들의 감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누구를 초대할 것인지 계획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사랑으로 대접하십시오. 밥도 사 주시고, 커피도 대접하십시오. 무엇보다 지금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미네소타로 부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부르셨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 미네소타를 먹이고 세상을 먹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곁에 있는 한 영혼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우리 교회가 미네소타를 먹이는 교회, 세상을 먹이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뉴스레터 겨울호(통권 65 호)

제출해 주신 원고의 내용은 한정된 지면 및 시간적 제약에 따라 원고의 내용과 의도가 왜곡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편집부에서 내용의 침삭 및 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행인	담당목사 정영환
교육위원장	오성욱
디자인/편집	오은아
원고교정	김은지/남경아
취재기자	박은영
사진	각 기관
인쇄/복사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송	뉴스레터사역팀
발행처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발행일	2020 년 1 월 19 일

기사제보 및 원고제출

kpcmnews@gmail.com

새 가족 여러분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 10/13/19-1/12/20 등록 교우



김승환/장은정 (예은) 가정



서무광 교우

미네소타한인장로교회
5840 Humboldt Avenue N.
Brooklyn Center, MN 55430
763.560.6699 / 763.560.2222(f)
www.kpcm.org / kpcm@kpcm.org